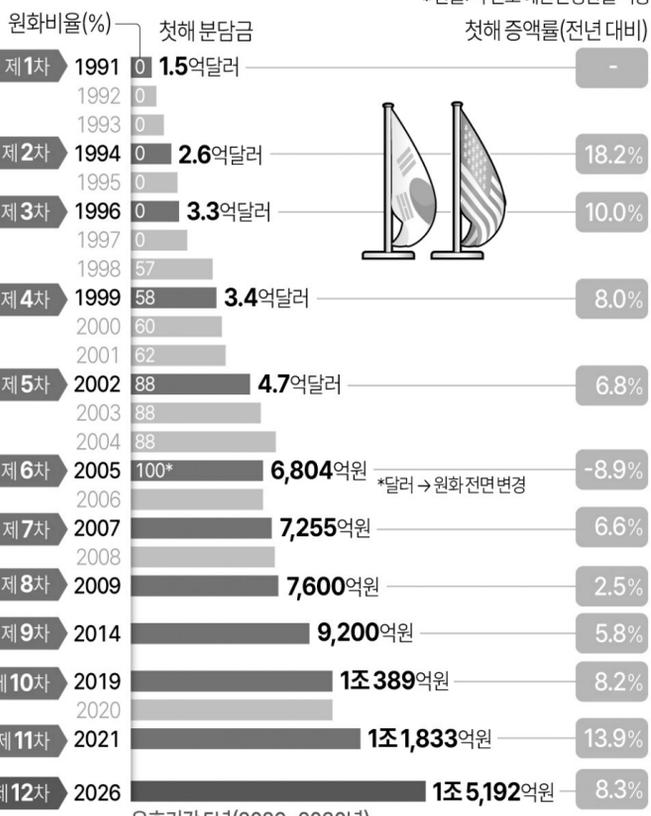


# ‘관세 압박’ 트럼프, 본심은 ‘방위비’?

## 한미 방위비분담금 규모



## 트럼프 “많은 돈 벌고 있는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 주한미군 주둔비 추가 인상 압박 “1년에 13조7천억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 하고서 한미 양국간 막바지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 역시 관세를 언급하는 도중 나왔다. 그는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국가와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해왔고, 모든 국가와 나쁜 협정을 한 큰 모델처럼 여겨져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더니 갑작스레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국

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 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 진행했던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이 오랜 교착 상태에 있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21년 3월 타결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한국에 ‘우리는 당신 은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소개했다.

또 “나는 (한국에) ‘그러나 다음 해(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정 선거(2020년 미 대선)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 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그들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끔찍하게 대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바이든)는

그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당시 약 5조7000억원)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50억 달러 인상 요구도 2019년 한국이 낸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에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언급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만8000명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한미군뿐 아니라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4만5000명, 실제로는 5만 2000명”이라고 언급한 뒤 “그런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 있다. 도시 하나를 가진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매우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美, ‘한국 주력 수출품’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달 말 결정

### 관세율·부과시점 언급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의약품 관세와 관련, “우리는 매우 곧 의약품에 대한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나라(미국)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공하고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의약품, 구리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품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

고 있다. 상무부 장관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조사한 뒤 그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부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 회의 후에 CNBC와 한 인터뷰에서 “구리는 (조사)가 끝났다. 우리는 조사를 마쳤고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넘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를 이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발표하고 관련 포고문에 서명할 계획이라면서 구리 관세는 7월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케냐 반정부시위 유혈진압 사망자 31명으로 늘어”

케냐 전역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벌어진 반정부 시위의 강경 진압에 따른 사망자가 31명으로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케냐인권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며 단일 날짜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7명이 부상하고 약 530명이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케냐 경찰은 애초 사망자를 11명으로 집계했다.

유엔은 케냐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과정에서 치명적 무력 사용으로 최소 31명이 사망한 이번 사건을 규탄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유엔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경찰이 폭력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치명적인 탄약과 고무



총, 최루탄, 물대포가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한 케냐 전역에서는 정부의 부패와 경찰의 가혹행위, 정부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 등에 저항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연합뉴스

## 美, 북 IT노동자 위장취업 도운 개인·기업 제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일(현지시간)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단체 안다리엘(Andariel)과 관련된 약의적인 사이버 행위자인 송금력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송금력은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이들을 정보기술(IT) 기업에 취업시키는 계획을 도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렇게 취업한 북한의 IT 노동자들은 회사의 네트워크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자금을 탈취해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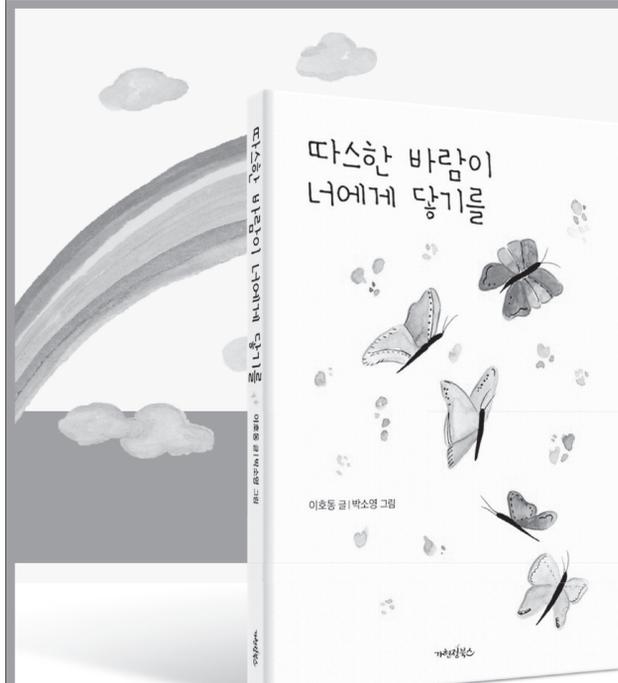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또 러시아에서 북한의 이런 계획 실행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와 그가 운영하는 러시아 회사 2곳, 러시아에 IT 노동자들을 파견한 북한의 무역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당사자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연합뉴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